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 조명

이정규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논문초록

본 논문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의 사상적 배경과 신관, 인간관, 구원관을 분석 고찰하여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방향 제시와 기독교 유아교육의 통합적 관점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몬테소리의 종교교육 사상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되는 실증주의적이고 과학적인 교육방법, 가정적 신앙 배경인 가톨릭 신앙, 인도 신비주의 종교에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몬테소리의 신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인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본성을 부여하고 자연만물과 유아의 발달법칙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속성을 계시하는 창조주에 대한 이해이었다. 몬테소리 인간관은 정신적 태아, 흡수정신, 민감기, 정상화에 대한 교육적 개념에서 나타나는데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였다. 몬테소리 구원관은 유아가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 본성의 발현을 이루어 나간다는 견해를 가졌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고찰한 몬테소리의 신관, 인간관, 구원관은 가톨릭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신관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인식에는 같은 견해를 가졌지만 인간관은 개혁주의의 견해인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적 타락이라는 관점과는 다르게 본성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관에서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형상 회복을 말하지만 몬테소리는 인간본성의 능력을 통한 정상화를 구원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몬테소리 종교교육 사상은 신관, 인간관, 구원관에서 개혁주의 관점과 혼재되어 있어서 성경적인 바른 분별이 요구되며 개혁주의적 분별을 통해 몬테소리 종교교육이 가지는 통합적 관점에 대한 바른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개혁주의, 몬테소리, 종교교육,

I. 서론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1952)는 이탈리아의 교육자로 의학에서 시작하여 특수교육으로 다시 일반 유아교육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유아교육계에 영향 준 교육자이다. 그녀는 정신지체아에 대한 치료 중에 과학적 관찰을 통한 교육적 접근으로 특수아동에게 의학적 치료가 아닌 교육학적 제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독특한 교육적 환경과 방법을 제시하여 세계 교육계에 주목을 받았다.

몬테소리는 1907년 로마의 산로렌조(San-Lorenzo)에 최초의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그녀가 발견한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교육학적 방법론을 정상 아동들에게 적용하였고 거기서 몬테소리 교육의 탁월성이 입증되었다. 몬테소리는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발견한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정신적 태아, 민감기, 흡수정신, 정상화라는 교육사상을 통해 준비된 환경 안에서 과학적이고 감각적인 구구체계를 통한 교육방법을 실행하였다. 또한 몬테소리는 어린이집의 한 구석에 가톨릭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가톨릭 신앙과 종교관에 근거한 유아교육을 실시하였다. 몬테소리는 특수교육, 일반유아교육, 유아종교교육, 다문화교육, 우주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연구하였으며 노년에는 가톨릭 종교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몬테소리 교육은 세계에 알려져 1907년에 첫 어린이집(Casa dei bambini)이 개원한 이래 약 100여년의 세월동안 보급되어졌다. 2007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몬테소리 교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고, 한국에서도 약 3000명의 몬테소리 교육자들이 모여 국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몬테소리 교육의 시사점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명미, 2009).

국내에서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연구된 논문은 수백여 편에 이르지만 몬테소리 종교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약 30편 정도에 이른다.¹⁾ 국내에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연구한 부분을 살펴보면 가톨릭이 22편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10편, 어린이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영역이 6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의 몬테소리 교육 연구는 일반 유아교육 관점에서 연구되어진 부분이 대부분이며 상대적으로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연구한 영역은 미미하다. 그러나 몬테소리 자신이 어린이집에 가톨릭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 침묵과 기도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나중에 가톨릭교회로 유아를 이끌기 위한 종교적 장소로 아트리움(Atrium)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몬테소리 교육에서 종교교육에 차지하는 영역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Gianna Gobbi, 2000).

기독교적 관점에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연구한 논문 중에는 가톨릭과 기독교가 같은 관점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몬테소리 종교교육이 기독교 유아교육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실시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몬테소리 종교교육이 어떤 종교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혼동의 결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근본적 관점의 차이를 모르는데서 시작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몬테소리 종교교육의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녀의 종교교육 사상에서 신관, 인간관, 구원관의 관점을 살펴보고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그녀의 종교교육 사상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개혁주의 학자들의 관점에서 신관, 인간관, 구원관에 대한 영역을 고찰하여 문

1) 한국정보학술교육원(KERIS)의 상세검색란에 논문제목으로 키워드 '몬테소리'를 검색하여 학위논문 267편, 학술지 논문 196편, 총426편이 검색되었으며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종교', '기독교', '가톨릭', '영성'과 '몬테소리' 검색어를 동시에 검색한 결과 426편중에 38편이 검색되었다.

테소리 종교교육 사상에 나타난 신관, 인간관, 구원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제시와 기독교 유아교육의 통합적 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연구하는 기초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몬테소리 종교 교육의 사상적 배경

1. 사회, 문화적인 배경

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환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문화적인 공동체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몬테소리는 가톨릭 배경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그 당시의 이탈리아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녀의 교육과 종교사상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몬테소리가 태어나기 전 후의 유럽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는 19-20세기 초까지 산업혁명 이후 기계와 기술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 왔지만 인간정신과 문화적 삶에는 공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공허감은 그 당시의 사상가들에 의해 인식되었고 기계에서 생명으로의 인식전환과 문화적 삶을 통해 문학, 학문, 철학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교육개혁운동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고 교육이론과 현장에서 ‘아동으로부터(vom Kinde aus)’라는 주제로 나타났다. 교육자 Ellen Key(1849-1926)는 20세기를 ‘아동의 세기(1900)’라고 선언했고, B. Otto(1859-1933), A. S. Neill(1883-1972)등은 자연적 발달과 아동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몬테소리였다(박신경, 1994).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교육사조는 신인문주의와 진보주의, 문화주의,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새 교육운동(New Education Movement)’의 시기라 볼 수 있다(김영미, 2009).

이탈리아는 18세기 초까지 프랑스, 1870년까지는 오스트리아의 통치 아래에서 국민 대부분이 농민과 노동자로 문맹률이 80%에 이르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낮아서 몬테소리가 태어난 1870년에 이르러 이탈리아는 독립국가로 출발하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정금자, 1988). 187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 정부는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였고 새로운 합방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 세금의 평등화, 교육의 일반화,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1877년에 이탈리아의 새로운 헌법은 어린이들을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보내었고, 새 교육정책은 10살부터 4년을 초등교육, 2년을 중등교육으로 정했다. 그러나 공적인 교육은 남성만을 위한 교육이었고 여성은 가톨릭 기관의 보수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조성자, 2006). 19세기 중반에 이탈리아는 교권주의와 가톨릭 철학에 대한 대항으로 프랑스의 실증주의(Positivismus)를 수용하여 문화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드러내었다. 사변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적 방법 대신에 실증학문과 경험을 통한 연구방법을 받아들였다(구경선, 1996). 몬테소리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기는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독일의 관념철학이나 형이상학적 이론보다는 실용주의적인 교육의 증가로 몬테소리가 기술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이경선, 2002; 문경미 2012 재인용).

몬테소리가 태어나 성장했던 유럽과 이탈리아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종합하면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과도기적인 성향을 가진 시기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있던 시대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교육이 가톨릭의 교권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교육과 실증적인 학문인 경험주의적인 과학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현장에서 충돌하였다. 몬테소리의 어린 시절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복고적 보수주의와 개방적 사회개혁에 대한 관점이 대립되는 시기였고 이러한 양상은 그녀의 가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보수적인 반면에 어머니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몬테소리 자신이 사회 개혁에 헌신할 마음을 가진 것은 그녀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Sigurd Hebenstreit, 1999). 몬테소리는 자신의 어린이집에 적용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소개하는 첫 저서의 이름을 ‘유아들과 어린이들의 집에 적용된 과학적 교육의 방법(The Method of Scientific Pedagogy as Applied to Infant Education and the Children’s Houses)’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교육방법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몬테소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교육방법은 그녀의 종교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몬테소리는 그녀의 어린이집(Casa dei bambini)에서 실시한 가톨릭 중심의 어린이 종교교육에서 유아들의 실제적 생활과 초자연적인 신앙적 삶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훈련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구를 응용한 종교적 교구를 통해 준비된 환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톨릭 미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를 위한 재료를 유아들이 직접 야외에서 재배하고 거둬들이게 함으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종교교육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Montessori, 1948). 이것을 종합하면 몬테소리 종교교육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형성된 교육사조인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경험적인 교육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녀의 가톨릭 중심의 종교교육 방법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톨릭시즘의 영향

몬테소리는 가톨릭 신앙이 국교인 이탈리아 앙코나(Ancona) 지방 카라벨레(Chiaravalle)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레닐테 스토폠파니(Renide Stoppani)는 매력적인 용모와 지적인 여성으로 총명하였고 마리아의 아버지 알렉산드로 몬테소리(Alessandro Montessori)는 보수적 기질의 군인출신 공무원이었다(신화식, 2006: 12). 몬테소리의 아버지 알렉산드로는 1848년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유럽혁명에 동참하여 이탈리아 통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849년에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고 재정분야 관련 사무원으로 중앙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1865년에 레닐테를 알게 되어 1866년에 결혼하였고(구경선, 2005) 1880년에는 코로나 이탈리아(Corona d’Italia)라는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Cavaglieri라는 기사 칭호를 수여 받았으며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1890년에는 성 마우리츠(st. Mauritz)와 나자로(Lazzaro) 수도원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조성자, 2006). 이러한 배경을 보면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몬테소리 어머니 레닐테 스토폠파니의 가문은 사제, 수도원장, 철학자, 과학자들을 배출한 집안으로 몬테소리는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몬테소리의 외삼촌인 안토니오 스토폠파니(Antonio Stoppani)는 밀라노 교구의 주교이며 시인, 자연과학자, 지질학자로 이탈리아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자연과학분야에서 여러 업적을 이루었으며 시인으로 명성을 알렸고, 자연계와 종교를 통합하려 한 학자였다. 몬테소리가 16살 때 스토폠파니는 여러 권의 저

서를 출판하였는데 그녀가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외삼촌의 영향이 컸었다(황윤경, 2007). 그는 1875년에 “아름다운 시골”, 1874년에는 “Alessandro Manzoni의 첫해”, “교회법과 실증과학”, “모세의 십계명과 성서”를 출간하였다(조성자, 2006). 이렇게 그 당시 존경받는 사제의 조카를 어머니로 둔 몬테소리의 가정적 가톨릭 신앙 배경은 그녀의 종교적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정희영, 2011: 210).

이러한 가톨릭 신앙 배경은 몬테소리가 의과대학에 진학할 때에도 영향을 준다. 1892년경에 몬테소리는 사회적 관습과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총장과 교황 레오13세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의과대학의 입학허가를 받는다(최영희, 2004). 또한 몬테소리 교육학장의 전성기인 1907-1912년 사이에 몬테소리는 어린이를 섬기는 수도회를 결성하려고 하였다. 이 때 그녀는 가톨릭 신앙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예수회 신부이자 로마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다치 벤트리(Tachi ventri, S.J.)의 반대로 무산되는데 그는 수도회를 결성하는 것은 그녀의 교육을 좁은 종교적 테두리에 묶는 것으로 종교를 초월하여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교육법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몬테소리를 설득하여 수도회 결성을 포기하도록 한다. 안나 마케로니(Anna Maccheroni)는 몬테소리의 4명의 여성이 예수회의 어느 신부 앞에서 교육에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였다고 말한다. 그 선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엄성 앞에서 나는 가톨릭교회에 헌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받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것을 맹세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청빈, 정결, 순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인류와 향기로운 문화 안에서 주의 교회가 번성하기를”이었다(Schulz-Benesch, 1962; 이선옥, 2003 재인용). 또한 교황 비오11세(Pius 11 1859-1939)는 몬테소리 방법에 대해 “우리는 사랑하는 딸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와 그 학교에 진심으로 사도의 축복을 빕니다. 학교에서 과학적 교육학의 방법을 따라 가르친 교육을 보면 가톨릭의 신앙규범과 진리를 지혜롭게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적용했는데 이것은 더욱 더 진리와 평안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할 것입니다. 1929년 10월 27일 만성절에 교황 Pius 11tp”(G. Schulz-Benesch, 1961; 구경선, 2005 재인용)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종합하면 몬테소리는 가톨릭 신앙의 가정적 배경 안에서 성장하였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톨릭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이러한 가톨릭 신앙 안에서 가톨릭교회를 위한 유아 종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가톨릭교회 종교교육을 유아에게 적용하였다.

3. 인도 신비주의 영향

1939년에 몬테소리는 인도 마드라스의 대학 총장이며 신지학회의 회장인 애룬달레의 초청으로 교사훈련과정에 참석차 인도에 갔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도에서 7년을 체류한다.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신민지로 적대국인 이탈리아인은 인도에서 구금되었다. 몬테소리도 가택연금을 당하였고 아들 마리오는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몬테소리 70세 생일에 인도 총독은 아들 마리오를 석방시켰다(이명아, 2005; 문경미, 2012 재인용). 몬테소리는 가톨릭 신앙배경을 가진 교육자로 1920년대부터 영국의 대표적인 신지학자 Anni Besant와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1936-1946년까지 인도에 머물면서 신지학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신지학이 그녀의 종교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라는 추측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의 반증으로 몬테소리는 신지학자들과 친분관계를 맺었던 시기에 가톨릭 종교교육에 대한 중요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하였다. 또한 바로셀로나에서는 가톨릭 예배의식(전례력)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교육을 실행한 점을 본다면 그녀는 가톨릭의 전통 안에 있었음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구경선, 2005). 몬테소리는 신지학회로부터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단호히 “나는 단지 몬테소리일 뿐입니다(Ich bin Montessorianerin)”라고 말하였다(조성자, 2006; 문경미, 2012: 재인용). 또한 당시 신지학자인 C. Jinarajadasa는 몬테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몬테소리 박사가 Arundale 박사에게 자주 감사를 표했다는 기록은 이상하다. 몬테소리는 인도신지학협회에서 자신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그녀가 로마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일 것이다(C. Jinarajadasa, 1948; 구경선, 2005 재인용). 오히려 몬테소리는 인도 신지학회의 영향보다는 인도의 종교(신비주의)에서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몬테소리는 인도에서 어린이들을 연구하여 그녀의 교육사상에서 가장 난해하다는 ‘흡수정신(Absorbent mind)’을 저술하였다. 흡수정신은 유아의 능동적인 정신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유아 스스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받은 인상들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몬테소리는 유아는 이렇게 받아들인 인상과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의 인성을 만들어 간다고 말한다. 몬테소리는 이러한 유아의 정신적 특징을 인도의 어린이들에게서 발견하여 자신의 교육사상으로 정립하였다. 흡수정신에서 자신의 교육적 발견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몬테소리의 독특한 교육적 용어인 Horne(생명력), Muneme(기억소), Nebule(성운)에 대한 개념은 인도 종교의 신비주의적 개념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몬테소리는 인도에서 생물들 간의 관계성을 연구하여 6~12세 아동을 위한 우주교육(cosmic education)을 구상한다(박경희, 이성숙, 2011). 인도의 동양적 종교의 범신론적인 관점과 우주정신으로의 통합과 조화에 대한 시각은 몬테소리가 구상한 우주교육의 틀을 만들었다(조성자, 2010). 이러한 관점은 인도 신비주의에서 나타나는 우주정신과의 합일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몬테소리는 인도의 종교적 신비주의사상에서 자신의 교육철학과 사상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Ⅲ. 몬테소리 종교교육의 사상 고찰

1. 몬테소리의 신관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면서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몬테소리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교육현장인 어린이집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실천하였다. 몬테소리의 신관은 가톨릭 신앙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졌다.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저서 ‘The Child in the Church(1930)’에서 나타나 있다. 몬테소리는 하나님은 어린이를 놀랍게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유아를 창조했다고 말한다(Standing, 1965). 몬테소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여 유아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다고 말한다. 몬테소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본성을 유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고 ‘영적 태아’로서 유아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은 생명의 신비를 유아가 체험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조성희, 1997). 몬테소리는 하나님은 유아를 사랑하고 창조세계에 우주적인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시는 분이요, 지상의 모든 존재는 창조의 대행자로 우주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

는 우주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조옥희, 권영자, 2001: 39). 그녀는 하나님을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몬테소리는 하나님께서 임신, 출산, 유아의 발달을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생명을 성장시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유아 발달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 현상과 창조한 사물의 속성에 부여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tanding, 1965: 12-15). 이것은 몬테소리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속성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롬1:20). 이것을 종합하면 몬테소리가 인식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인간에게 자신의 본성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또한 자연만물과 유아의 발달법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속성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였다.

2. 몬테소리의 인간관

1) 아동관

몬테소리는 추상적인 관점에서 아동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인간론적인 아동관을 정립하였다. 그녀는 산 로렌조에 최초의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유아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유아들은 집중력과 반복에 대한 흥미, 질서감, 선택의 자유와 작업에 대한 선호도, 상벌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인 거절,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감각과 자발적인 자기 훈련에 임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신화식, 2007: 25). 몬테소리는 직접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아동관을 정립하였다. 그녀는 유아들의 관찰을 통해 발견한 유아의 특징과 성향을 정립하여 인간발달 초기의 독특한 아동관을 가지게 되었다. 몬테소리의 아동관은 정신적 태아, 흡수정신, 민감기, 정상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정신적 태아

몬테소리는 유아를 정신과 육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고 생물학적인 세포분열을 통한 육체의 발달뿐만 아니라 무한한 지적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 태아(Spiritual embryo)로 인식하였다(조옥희, 권영자, 2001: 61). 그녀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세포분열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설계에 따라 각 구성 요소들의 알맞은 자리가 배당되며 정신적인 태아도 육체의 성숙과정 안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 성숙과 발달을 이루어 간다고 말한다. 몬테소리는 유아의 발달과 성숙은 본성적이며 타고난 설계에 따른 육체적, 심리적으로 적절하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된 한 인간으로 성숙되어 간다고 말한다(Sigurd Hebenstreit, 2004: p209-211). 정신적 태아라는 관점은 유아의 성숙과 발달을 생물학적인 진화적 관점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관점에서의 성숙과 발달을 말한다. 육체적, 정신적 태아라는 관점은 무에서 유로의 태어남과 동시에 생명의 성숙과 발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과정을 따른다는 설계에 대한 관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흡수정신

몬테소리는 유아를 관찰하는 가운데 유아의 정신을 ‘흡수정신(absorbent mind)’라고 정의를 내렸다(신화식, 2006: 78). 흡수정신은 유아의 능동적인 정신적 특성으로 유아 스스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받은 인상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흡수정신은 유아가 받아들인 인상과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인성을 만들며 다양한 감각 인상들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뒤 따라오는 의식적인 이해를 통해 이미지나 인상을 통해 의식을 확장시킨다(Sigurd Hebenstreit, 2005: 220). 몬테소리는 흡수정신은 6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무의식적인 단계와 의식적인 단계로 구분하였다. 무의식적 흡수정신은 0~3세 동안에 나타나며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들의 인상들을 흡수하여 먼저 받아들인 인상들을 통합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흡수정신의 시기에는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반사, 모방, 조작적 놀이를 통한 경험 안에서 자신의 의식과 정신을 조직화하고 형성시켜 나간다(신화식, 2006: 79). 의식적 흡수단계인 3~6세 동안에는 유아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발달과 흥미에 알맞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적 인상을 경험의 반복을 통해 심화시켜 자신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단계라고 말한다. 의식적인 흡수정신 시기는 질서 있는 환경과 유아 스스로의 선택적이고 계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지를 강화시킴으로 감각기관을 통한 교육으로서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조옥희, 권영자, 2001: 60). 몬테소리의 아동관에서 흡수정신은 유아는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몬테소리는 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형성시켜 나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흡수정신에 대해 말한다.

(3) 민감기

몬테소리는 유아 발달 단계에서 특별한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독특한 시기가 있다고 말한다. 이 시기를 그녀는 민감기(sensitive period)라는 용어로 말하며 민감기는 변이론(Mutation Theory)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생물학자 휴고 드브리스(Hugo De Vries)의 나비 유충 연구에서 유충이 빛에 민감성을 가지는 것을 명명한 ‘민감성’이란 용어에서 가져왔다(조옥희, 권영자, 2001: 82). 몬테소리는 0~6세 유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특성을 습득하기 위해 내적인 흥미와 충동이 특정 자극과 환경에 대해 발화하여 깊은 집중과 반복을 통해 상호작용적 관계로 들어가는 특별한 시기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민감기 시기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독특한 성향이 획득되었을 때 약화되거나 사라지며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고 다른 성질의 민감기가 찾아온다. 몬테소리는 흡수정신, 언어, 근육발달, 작업, 질서, 감각, 촉각, 미각, 후각, 쓰기, 작은 사물, 예의, 읽기, 운동의 민감기가 나타나는 시기와 지속기간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녀는 특별한 특성을 획득한 후 민감기는 소멸되는 일시적인 시기라고 본다(신화식, 2003: 40). 민감기를 통해 본 몬테소리 아동관은 유아 시기에는 발달의 단계가 기계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을 이끄는 힘이 외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적인 아동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드브리스가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 곤충에게서 발견한 민감기적 요소를 유아기의 발달에 적용함으로써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숙과 발달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정상화

정상화는 몬테소리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가 본연의 발달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유아가 환경과의 질 높은 상호작용으로 작업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 반복함으로 자신의 내적 훈련, 목적 지향적인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신화식, 2003: 55). 이러한 정상화는 민감기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감수성, 환경에 대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흡수정신, 몬테소리의 준비된 환경의 교구를 통해 집중적이며 반복적인 작업을 행함으로 유아 내면의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유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준비된 환경’을 통하여 촉진된다고 말한다(조옥희, 권영자, 2001: 87). Standing(1957)은 정상화의 결과로 유아들은 내적인 기쁨, 행복감, 환경과 작업에 대한 사랑, 현실에 대한 애착과 자율적인 순종, 독립성과 주도성, 자발적인 자기 훈육, 인격의 순화가 일어나며 정상화에 도달한 유아는 보편적 법칙에 따라 생활하는 인격체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정상화는 유아가 내적인 본성과 일상생활, 준비된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발달적 성숙을 이끌어가는 것이다(조성자, 2006). 몬테소리는 유아가 태어나면서 환경과의 발달적인 상호작용의 결여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달에서 일탈된 상태를 정상화된 유아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몬테소리는 일탈의 상태에서 정상화의 상태로 유아의 내적인 생명을 이끄는 것이 교육이라 보고 준비된 환경과 교구체계를 개발하였다. 정상화를 통해 보여주는 몬테소리 아동관은 유아 내면에는 본래적으로 완전을 향한 발달과 성숙의 씨앗이 있으며, 준비된 환경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집중을 유발하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인격과 성품이 정화되어 평화롭고 균형있는 정신생활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박경희·이성숙, 2011).

2) 종교 교육관

몬테소리는 종교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우주에 대한 초자연적 감성이며 태초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유아에게는 언어발달의 모습과 같이 종교발달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몬테소리는 인간에게 신앙심이 부족하면 인간 발달의 근본적인 어떤 것이 결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조용태·차상희, 2001). 몬테소리는 아동에게 종교적 감정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적 발달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아동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잠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능적인 종교적 감정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내용에 집중하였다(조성자, 1989). 몬테소리는 유아가 영적 태아기를 거치면서 발달하며 종교적 잠재능력의 발달도 내재해 있다고 말한다. 영적태아의 종교성은 종교적 민감성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유아의 종교적 민감기인 3-6세에 종교심을 발달시키는 것이 최적의 단계라고 말한다(조성자, 2009). 그녀는 유아의 종교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녀는 1910년부터 종교교육에 대한 방법과 교구를 개발하여 유아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몬테소리 종교교육의 특징으로 종교를 삶의 총체적 영역으로 이해하여 일상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유아들을 훈련시켰다. 그녀는 인간 종교는 잠재적 능력으로 특정 종교나 교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으로 이해하여 잠재적 종교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교교육 교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조성자, 2001). 또한 그녀는 어린이의 민감기 시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흡수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교육 장소를 따로 제공하는 것이 어린이의 종교적 성향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박성은, 1999). 그래서 몬테소리는 종교교육을 위한 준비된 환경으로 ‘Atrium’이라는 장소를 준비하였다. 아트

리움은 초대 교회의 입구와 성소 사이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던 곳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가기 전 자신을 준비하는 곳이다(Gianna Gobbi, 2000: 4). 아트리움은 몬테소리 학교와 가정, 교회를 연결하는 특별한 장소로 유아를 가톨릭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신앙과 영성을 준비시키는 장소이다. 그녀는 아트리움을 교회와 교실의 통로로 이해하고 유아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종교심을 성숙시킬 수 있는 교회 생활의 준비와 연습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종교교육을 위한 준비된 환경으로 아트리움 환경 배치는 정 중앙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착한 목자상과 성경, 테이블을 둔다. 가톨릭 전례력에 따라 종교교구를 배열하는데 종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과 미사, 세례를 보여주는 교구가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조성자·정갑례, 2003). 아트리움의 종교교육 내용으로는 가톨릭교회의 전례력을 기반으로 한 축제 중심의 절기, 기도를 통한 종교적 실천을 들 수 있다. 방법으로는 유아기 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침묵과 기도교육, 성찬예식의 준비과정과 실행, 성물의 중요성과 가치, 의미인식, 유아기관에서의 종교교육 생활화를 위한 기도훈련을 제시한다(조성자, 1989). 이렇게 몬테소리 종교교육은 유아의 실제적 삶과 종교적 환경 안에서 감각적인 종교교육 교구를 통해 유아를 가톨릭 신앙에 기초한 종교성에 대해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몬테소리의 구원관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가톨릭 배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가톨릭 신앙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졌고, 이러한 종교적 신앙은 그녀의 교육사상과 신관, 아동관, 구원관에 영향을 주었다. 몬테소리는 유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인 잠재능력과 자유의지, 지혜를 부여받아 유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교육을 유아의 내부에 하나님이 부여한 잠재능력을 유아 스스로 자기 활동을 통하여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김영미, 2009). 1930년에 쓰여진 ‘교회 안의 어린이’는 몬테소리의 교육적 방법을 가톨릭 신앙교육에 접목하기 위해 유아 종교교육의 방법을 다양한 교구체제로 전환하여 유아에게 이론적이며 방법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신화식, 2007: 21). 몬테소리는 어린이집 내부에 가톨릭 신앙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한 장소로 구분한 아트리움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몬테소리의 구원관은 유아를 일탈에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으로 인식한 유아 이해에 나타난다. 가톨릭 구원관은 유아는 영세에 의해 중생 된다고 보며 믿음보다는 주입된 은혜에 의해 부여된 사랑을 통해서만 칭의를 얻는다고 본다(Louis Berkhof, 1992). 몬테소리는 유아가 영세를 받았고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 일탈에서 정상화가 되어 진다면 유아는 구원 받은 것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아트리움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적용할 때 복음에 대한 강조보다는 교리문답을 통한 성례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몬테소리의 구원관은 가톨릭 신앙에 근거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IV.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몬테소리 종교교육의 비판적 고찰

1.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신교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위에 세워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신교 교회의 관점이 개혁주의이다. 개혁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쾰링글리(Zwingli, 1484-1546)와 칼빈(Calvin, 1509-1564)의 개혁을 루터(Luther, 1483-1546)의 개혁운동을 통해 나타난 루터파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로 부르는데 이는 칼빈이 이 신학을 분명하게 해설하고 체계화를 시켜 붙여진 이름으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같은 뜻을 나타낸다(이상규, 2012). 루터파와 개혁교회는 교리적 긴장을 가지고 있었고 개혁교회는 루터파가 로마 가톨릭의 잔재와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지속적인 개혁(semper reformanda)을 단행하였다. 즉, 루터파가 예배와 교회제도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에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예전의 가시적 상징들 즉, 제단, 성찬, 교회 안의 성상들을 제거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회개혁을 단행하였다(유해무, 2011). 즉 개혁교회는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로마 가톨릭 관점에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회귀하였다. 개혁주의의 특징은 66권의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절대주권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체계이다(이상규, 2012). 이러한 개혁신학의 특징은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으로 믿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셨음을 받아들인다. 또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신 자비의 선물인 것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연합되었을 때 주어지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성, 2003: 49-66).

이러한 개혁주의에서 신관, 인간관, 구원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연결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말한다. 이는 개혁주의의 신관, 인간관, 구원관이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고 이것은 구원적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박영돈, 2011). 몬테소리 종교교육 사상에 대한 이해는 그녀의 신관, 인간관, 구원관의 관계성 안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몬테소리 신관, 인간관, 구원관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2. 개혁주의에 근거한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고찰

1) 개혁주의에 근거한 몬테소리 신관 고찰

개혁주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관한 지식을 온 우주만물과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러한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통해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심으로 그분의 속성을 보여주는 분으로 말씀하신다(롬1:20; 창2:19).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영혼, 지성과 의지, 도덕성, 땅에 대한 통치 등을 포함한다(Louis Berkhof, 1974). 하나님의 창조는 단회적이면서 지속적 개념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

하셨고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지속시켜 나가신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계시하며 이것이 피조물의 본질적인 목적이다(Albert E. Greene Jr, 1998).

몬테소리가 인식한 하나님은 가톨릭 신앙을 전제로 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유아에게 자신의 본성을 부여하신 창조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다. 몬테소리가 하나님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자신의 뜻을 피조물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유아의 성숙과 발달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영역이라는 부분은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인식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유아의 본성이 창조되었고 자란다는 관점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2) 개혁주의에 근거한 몬테소리 인간관 고찰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의와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순종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완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Louis Berkhof, 1992).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관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이웃에 대한 공의,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능력도 부여받았다(Robert L. Reymond, 1998). 칼빈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은 순수한 마음과 정신의 빛 안에서 모든 선함에 탁월하였고 참된 지식, 거룩함, 의로움을 포함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성결과 의로움을 향한 열정 등이 있었다고 말한다(Anthony A. Hoekema, 1990).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에 고통과 악이 들어왔음을 보여준다(창세기 3장). Wolters와 Goheen(2005)은 타락의 범위는 창조세계 전체에 미쳤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오용되고 왜곡되었으며 죄 된 목적으로 착취되었다고 말한다. 개혁주의에서 인간 타락은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아 영혼의 모든 권능과 기능이 손상을 받아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교제의 능력을 상실했으며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되었다(Louis Berkhof, 1992). 개혁주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은 전적 타락으로 왜곡되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몬테소리의 아동관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태아, 흡수정신, 민감기, 정상화에 대한 개념은 유아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능력에 대한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유아가 정신적 태아로 태어나서 환경에 대한 특수한 민감성을 통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잠재적인 흡수정신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작업을 선택하여 자의식을 형성해 간다는 것은 유아 내면의 본성적 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관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몬테소리의 인간관은 당시의 실험심리학이나 신교육운동이 몬테소리 교육이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프뢰벨로 이어지는 아동중심, 자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교육사상이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박경희·이성숙, 2011: 29). 또한 몬테소리는 가톨릭 신앙의 영향으로 유아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성인들이 유아가 선을 향하도록 유아의 본성적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위험이 어린이에게서 멀어지도록 배려한다면 어린이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한다(이선옥, 2008: 26). 가톨릭의 하나

님 형상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신적 선물인 욕망이나 욕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질은 잃어 버렸지만 인간의 본성인 의지와 이성과 같은 인간 본성의 본질은 잃어버리거나 파괴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가톨릭의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은 인간 본성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아도 인간은 어느 정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원론적인 사변철학과 자연신학, 자연주의 윤리학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Millard J. Erickson, 1985: 67-68).

몬테소리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인식에서 간과된 것은 방향성, 왜곡,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부패와 오염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은 몬테소리 아동관에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던 가톨릭 신앙의 결과이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은 남아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영역은 왜곡되어 있고,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형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반사하지 못함으로 “표적을 빗나간 형상”이라고 말한다(M. Fakkema, 1982: 74-75).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적 재능과 생물학적 기능의 상실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생명의 상실과 방향성의 왜곡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몬테소리가 인식한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과 오염에 대한 관점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3) 개혁주의에 근거한 몬테소리 구원관 고찰

개혁주의에서 구속과 구원은 인격적인 정화나 행위를 통하여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증생케 하심을 통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원과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한다(Albert M. Wolters, Micheal W. Goheen, 2005: 116-120). 개혁주의의 구원관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박영돈, 2011:82-85). 개혁주의는 인간 본성의 선한 의지나 잠재력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몬테소리의 구원관은 아동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온전한 본성을 이루어 간다는 견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한 은혜만이 인간의 구원과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혁주의적 관점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박신경, 1994). 이는 몬테소리 종교사상이 가톨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자연적인 행위를 통한 유아의 정상화를 구원의 과정으로 인식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구원관은 몬테소리가 생각한 정상화된 유아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준비된 환경에서 유아가 중심이 된 교육을 통해 정상화된 유아들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한다고 몬테소리는 말한다. 가톨릭의 구원관적 견해가 그녀의 신앙적 배경에 있다면 일상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정상화된 유아는 충분히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보았을 것이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어린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새 생명을 받을 때 어린이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위한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발달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가톨릭 신앙배경과 어린이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통해 발견한 유아에 대한 영역을 정상화 된다는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개혁주의적 견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몬테소리 종교교육 사상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몬테소리 종교교육과 기독교 유아교육이라는 혼동된 시각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정립해 보고 이를 근거로 어떻게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기독교 유아교육의 통합적 관점을 모색해 보았으며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몬테소리 종교 사상은 다양한 배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몬테소리는 그녀가 태어나고 살았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교육사상과 방법론적인 영향을 받았다. 과학적 교육방법론은 그 시대의 학문적 조류에 대한 반영이었고 몬테소리 종교교육의 방법에 영향을 주었다. 가톨릭 신앙적 배경은 몬테소리가 어린이집에서 가톨릭교회로 유아를 인도하는 중간 장소인 아트리움(Atrium)이라는 환경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게 만들었다. 인도에서의 생활과 인도 종교의 신비주의의 영향은 몬테소리가 자신의 교육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주어 종교교육과 우주교육에 대한 틀을 구상하게 만들었다. 몬테소리 종교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녀의 종교교육사상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몬테소리의 범 학문적인 다양한 배경과 몬테소리 사상 이해에 대한 어려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몬테소리 교육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희영, 2011). 몬테소리 종교교육 배경의 다양성은 그녀의 종교교육적 독특성으로 가톨릭교회에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으로 종교교육 방법이 적용되었고 유아의 발달과 성숙을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합적 시각을 가지게 하였다.

둘째로 몬테소리 종교교육 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관은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은 유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이다. 또한 인간관은 몬테소리의 아동관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신적 태아, 민감기, 흡수정신, 정상화, 종교교육은 몬테소리가 유아 본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하였고 교육이 유아의 본성을 돕는다면 유아는 정상화(normalization)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유아의 정상화는 유아의 인격을 순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그녀의 종교교육에 실제적 방법론으로 적용되어 어린이집에서 실행되어졌다. 몬테소리는 어린이집(Casa dei Bambini)에서 몬테소리 일반유아교육에 중점을 두고 가톨릭 종교교육을 통합적으로 적용했으며 나중에는 아트리움(Atrium)을 만들어 가톨릭 종교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일반유아교육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것은 기독교 유아교육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셋째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몬테소리의 종교교육 사상을 고찰할 때 그녀의 사상은 가톨릭 신학과 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몬테소리는 가톨릭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녀의 신관, 인간관, 구원관은 가톨릭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가톨릭 관점이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개혁주의의 관점과 다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내에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해 겪고 있는 혼란은 가톨릭 종교교육을 기독교 교육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테소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여 자신의 뜻을 피조물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유아의 성숙과 발달을 다스린다고 이해했다. 이 부분은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하나님 이해와 동일하나 하나님의 본성으로 유아의 본성이 창조되었고 자란다는 관점은 개혁주의 관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몬테소리 인간관은 가톨릭 구원관과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영향으로 인간 본성의 선한 능력을 주장했지만 개혁주의 입장은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음을 말한다. 몬테소리 구원관은 유아가 교육을 통해 정상화를 이루면 구원받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개혁주의의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다. 몬테소리 종교교육과 개혁주의의 관점 차이를 이해하여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기독교 유아교육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수직적으로, 다양한 유아의 활동과 영역에서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성경적(기독교적) 영역과 자연적(일반적) 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정희영, 2004: 282). 몬테소리 종교교육은 가톨릭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자신이 유아를 통해 발견한 일반영역을 가톨릭 종교교육과 통합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즉,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의 통합을 위한 실마리와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경선 (2005). 『영유아 교사를 위한 몬테소리 교육의 사상과 실제』. 교육아카데미.
- 김영미 (2010). 몬테소리 교육학파를 통한 유아영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재성 (2003). 『개혁신학의 정수』. 서울: 이레서원.
- 박경희·이성숙 (2011). 『몬테소리 이론』. 경기도: 공동체.
- 박성은 (1999). M. Montessori 종교교육 활성화 방법에 대한 연구. Montessori교육연구. 4. p59-79.
- 박신경 (1994). Maria Montessori의 교육사상과 그 기독교적 의미. 신학과 목회. 8. p233-257.
- 문경미 (2012). 몬테소리 아동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총신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화식 (2003). 『몬테소리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2006). 『몬테소리 이론의 탐구』. 서울: 학지사.
- (2007). 『개별화 교육을 위한 몬테소리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유해무 외6 (2011). 『개혁주의를 말하다』. 서울: SFC.
- 이상규 (2012).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선옥 (2003). 몬테소리의 아동관을 통해서 본 종교와 과학성의 의미. 한국일본교육학연구. 791). p67-83.
- (2008). 『몬테소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 태영출판사.
- 이영미 (2009). “몬테소리 교육방법 관련 연구동향(1969-2008)”.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조성자·정갑례 (2003). Montessori 종교교육 교구개발과 현장적용에 대한 효과분석. Montessori교육연구. 8. p1-23.
- 조성자 (1989). M. Montessori의 종교 교육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연구. p137-150.
- (2001). Montessori 교육사상에 나타난 영성의 의미. Montessori교육연구. 6. p1-21.
- (2006). 『몬테소리 과학적 교육학』. 서울: 신정.
- (2006). 『마리아 몬테소리 자서전』. 서울: 신정.
- (2010). 『몬테소리 우주교육의 철학적 관점』. 도서출판: 공동체.
- 조성희 (1997). 가톨릭 교육이념과 몬테소리 교육사상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옥희·권영자 (2001). 『3, 4, 5세 유아를 위한 몬테소리 유아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조용태·차상희 (2001). Montessori 교육사상에서의 인간과 종교. Montessori교육연구. 8. p115-127.
- 정금자 (1988). M. Montessori 교육이론과 그 배경. 특수교육연구. 15. p89-107.
- 정희영 (2004). 『기독교 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2011).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근, 현대 교육사조』. 서울: 그리스.
- 최영희 (2004). 몬테소리 교육과 어린이의 정신세계. 가톨릭신학과사상. 50. p235-260.
- 황윤경 (2007). 몬테소리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 부모교육연구. 4(1). p61-85.
- Albert E. Greene Jr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현은자 외2 역(2004).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 Albert M. Wolters, Micheal W. Goheen (2005). *Creation Regained*. 양성만·홍병룡 역(2010).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 Anthony A. Hoekema (1990).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1993).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 Gianna Gobbi (2000). *Listening to God with Children*. OH: Treehaus Communication, Inc.
- Louis Berkhof (1974). *Systematic Theology*. 권승경, 이상원 역(1992). 『별코프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 이제스트.

- Millard J. Erickson (1985). *Christian Theology, One Volume Edition*. 현재규 역(2003). 『복음주의 조직신학』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M. Fakkema (1982). *Christian Philosoph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 황성철 역(1988). 『기독교교육철학』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Montessori, Maria (1948). *The Discovery of the Child*. 조성자 역(1997). 『몬테소리의 어린이 발견』. 서울: 창지사.
- Robert L. Reymond (1998). *A New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Faith*. 나용화 외3 공역(2004). 『최신 조직신학』. 서울: CLC.
- Sigurd Hebenstreit (1999). *Maria Montessori*. 이명아 역(2005). 『참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 서울: 문예출판사.
- Standing, E. M. (1957). *Maria Montessori: Her life and work*. New York: Penguin Group.
- Standing, E. M. (1965). *The Child in the Church by Maria Montessori and others*. North Central Publishing Co.